

미 월마트, 가전제품 가격인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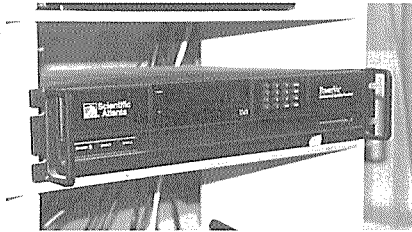


월마트가 미국의 연말 대목을 맞아 가장 먼저 디지털 가전 제품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나섰다. 월마트는 올 연말에 유가 상승에 따른 개인 소비세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저가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북돋우겠다는 전략이다.

월마트의 연말 세일은 보통 11월 말부터이지만 올해는 11월 셋째주부터 개시했다. 리 스콧 월마트 CEO는 “지난 해는 이익을 우선시해 가격 인하를 자제한 결과 고객 발 길이 줄어 들었다”면서 “올해는 공격적인 저가 공세로 물건을 내놓았다”고 선언했다. 우선 디지털 카메라 가격이 80달러로 책정됐고 포터블 DVD플레이어가 100달러, 또 게이트웨이와 공동으로 800달러이하 노트북 PC를 자체 브랜드로 선보였다.

미 소매업 판매의 약 10%를 차지하는 월마트의 이 같은 저가 공세는 조만간 업계 전체로 파급될 전망이다. 딜로이트리서치의 칼 스테이드먼 연구원은 “월마트가 최근 3년 간 가장 싼 가격을 책정했다”면서 “극단적인 가격 인하 처분으로 인해 업계 전반적인 수익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스코, 셋톱박스 시장 진출



통신장비업체 시스코 시스템스가 셋톱박스 시장에 진출한다.

시스코는 미국 2위의 케이블 TV용 셋톱박스 전문 업체 사이언티픽 애틀랜타를 69억달러(한화 7조1500억원 상당)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11월 18일 보도했다.

인수 가격은 사이언티픽의 전일 종가 41.45달러에 3.7%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이다.

이번 인수는 시스코 사상 두번째이며 최근 5년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다.

시스코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개인 고객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이번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스코는 TV가 홈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셋톱박스 업체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스코는 지난 98년 가정용 모뎀으로 개인 고객 시장에 처음 진출했으나 2년도 안돼 철수했다.

사이언티픽 애틀랜타는 1951년 설립됐으며 케이블 TV용 셋톱박스 외에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와 케이블 모뎀도 판매한다. 미국 셋톱박스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달리며 모토로라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매출은 19억달러이며 주요 고객은 타임워너케이블, 컴캐스트,

케이블비전, SBC커뮤니케이션스 등이다.

IBM, 중국에서 2,000만달러 규모 컴퓨터 공급 계약 체결

중국 정부가 IBM으로부터 2,000만달러(한화 207억원)이상의 컴퓨터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C넷이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것은 IBM이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하는 가장 큰 규모의 유닉스 컴퓨터 판매라고 IBM은 밝혔다.

IBM은 중국의 세금관리국이 'IBM e서버 p5' 서버 10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IBM은 HP를 누르고 이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다. 중국 세금관리국은 현재 휴렛팩커드(HP) 서버도 사용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IBM과 HP가 유닉스 서버 시장에서 벌여 온 점유율 경쟁에서 가장 큰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HP는 성명에서 중국 세금관리국이 지난 해 구입한 46 슈퍼돔 제품을 포함해 80대의 HP 컴퓨터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중국 세금관리국의 HP 슈퍼돔 구매는 그 동안 HP 슈퍼돔 단일 판매 중 가장 큰 규모였다.

한 분석가는 이번 계약이 지난 수년 간의 유닉스 서버 시장에서 IBM의 부활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돈 올즈 가브리엘 컨설팅 그룹 창업자는 IBM은 서버 관리 및 시스템 효율화 기능을 서버에 추가함으로써 HP와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및 기타 업체들을 따라잡아 왔다고 분석했다.

노키아, 기업용 모바일 시장 잡기 나섰다

노키아가 미국계 모바일 메시징 전문업체 인텔리싱크를 4억 3,000만달러에 인수하고 기업용 모바일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고 C넷이 11월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블랙베리'로 기업용 모바일 시장을 장악해 온 리서치인모션(RIM)과 휴대폰 기반의 기업용 이메일 확산을 노리는 노키아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키아는 요즘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체 기업 네트워크에 특화된 모바일 메시징 기기 도입을 늘리는 추세를 감안해 기업용 모바일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왔다. 이를 위해 휴대폰으로 기업용 웹메일에 접속할 수 있는 노키아 비즈니스 센터란 솔루션도 선보이고 기업용 단말기도 잇따라 출시했다.

노키아는 이번 인텔리싱크 인수로 노키아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한차원 높여 사실상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기업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기업용 모바일 시장에서 노키아와 경쟁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팜의 경우 독자적인 모바일 이메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독일, IT 정보통신시장 올해 2.6% 성장

독일 IT정보통신협회(BITKOM)의 IT산업 동향 조사에서 독일의 IT 정보통신시장은 2005년 중 전년대비 2.6% 성장하고, 총 시장규모는 1,341억유로(한화 160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의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2005년도 중 0.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T 정보통신시장은 2004년에 이어 두 배 이상 높은 2.6%의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6년에는 전체시장 규모가 금년대비 2.4% 성장한 1,373억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5년 중 독일의 IT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문은 노트북부문, 핸드폰을 포함한 멀티다목적 기기, IT서비스분야로 특히 성장세가 주목된다. 모바일과 유선분야의 정보통신분야는 가격할인 등의 경쟁이 심화돼 연초 기대치보다는 다소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반도체 업체들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공동으로 설립

히타치와 도시바 등 5곳의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월 18일 보도했다.

히타치와 도시바 외에 마쓰시타전기산업과 NEC전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등이 이번 공장 설립에 참여하며 현재 이들은 공장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한 상태다. 신문은 이들의 합의에 따라 내년 봄까지 구체적인 공장 건설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며 내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2007년부터는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차세대 반도체 공장은 이들 5개사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LSI(대규모집적회로)를 생산하게 된다. 신 공장은 현재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90나노미터(nm)보다 더 높은 집적도를 보이는 65nm 이하의 시스템LSI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합의가 일본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연합전선을 구축, 공동 생산에 나서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는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현재 대규모 자본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과의 경쟁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니-NEC, 광학 드라이브 공동 생산 MOU 체결

일본 소니와 NEC가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 공동 생산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에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1월 17일 보도했다.

이들 두 업체는 조인트벤처를 통해 내년 4월부터 ODD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주로 PC와 다른 전자 기기들에 사용될 DVD나 CD드라이브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조인트 벤처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향후 계약을 마무리짓기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조인트 벤처에 대한 지분은 소니가 55%, NEC가 45%를 갖게 되며 소니 측은 자사의 광학 기기 기술과 NEC의 시스템 칩 기술을 결합시켜 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